

일 대학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폭력 태도

성 미 해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ex Role Identities and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Sung, Mi-Ha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how various sex role identities in female college students affect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Methods:** From September 1, 2008 to September 30, 2008,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instruments developed by Park (2002) and Shin (2004) was distributed to 295 female college students. Frequency, χ^2 test, ANOVA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WIN 10.0 Program. **Results:** In the four kinds of sex role identity, Androgyny type was most common (30.7%).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x role identity and communication for conflict. Subjects have positive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x role identity and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Conclusion:** Sex role identity has to be considered in research and practice about sexual violence. The program that focus on problem solving of sexual education for subjects who were undifferentiated typed group, should be provided.

Key Words: Sex role identity, Sexual behavio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게 된다(Oswald, 2004).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의 집합체로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과 실제 생활 간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Kwon et al., 2006).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문제인 강간, 근친상간, 성희롱, 가족 내 폭력, 성폭력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은 피해자의 97.3%가 여성이며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여성건강의 주요문제가 되고 있다(Kwon et al., 2006; Lee et al., 2010). 이러한 성폭력은 성충동이나 호기심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나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가족적 요인과 유인, 유혹, 협박, 잘못된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역동적 개념이다(Lee, 2006; Nam, 2000; O'Donohue, Downs, & Yeater, 1998).

인간은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의 부적응을 규명하고

주요어: 성역할 정체감, 성폭력 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투고일 2010년 8월 3일 / 수정일 1차: 2010년 10월 29일, 2차: 2010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3일

치료하는데 있어서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Kim, Do, & Lee, 2003).

선행연구들(Nam, Yoo, & Park, 2000; Yeo, 2003)을 보면,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초해 발생하며 일상생활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고착화된 관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는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중심의 문화로 유교는 남자(양)와 여자(음)인 양성사이에 명백한 위계질서를 두고 있으며, 가정문화 속에서도 이중규범을 두어 남녀를 구분하고 있다(Nam et al., 2000). 이러한 남녀에 대한 성의 다른 규범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흡수되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한다. Houg (2005)은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회맥락 속에서 형성된 신념으로 그릇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합리화, 이중적인 성규범으로 개개인에게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Jang (200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폭력 대상,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의 피해자 유발론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2002)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역할을 수행한 대상자는 진로결정 및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왜곡된 성역할은 남녀의 성관계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문화 속에서 규정된 남성 중심적 가치는 그 사회의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개인이 수용하는 사회적 가치는 같은 성별 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개개인의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성역할 개념은 사회적 성(gender)과 관련된다(Ko & Lee, 2007). 이러한 성역할은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생물학적인 구조보다는 남녀에 대한 사회학적인 성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Nam, 2004).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 불평등한 남녀 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고착화된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Nam et al., 2000). Nam 등(2000)은 남녀의 이중적 성 윤리를 많이 내면화 할수록 성폭력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Sung과 Lim (2009)은 성에 대한 규범을 남녀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는 성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이 사회화된 성별을 나타내는 개념(Park, 2002)임을 볼 때, 성폭력 문제는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Baek & Lee, 2006; Lee, 2000; Sadler, Booth, Nielson, & Doebbeling, 2000), 성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인식(Jang, 2003; Nam et al., 2000; Sung & Lim, 2009) 등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성폭력 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교 중심의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볼 때,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 시기의 주된 발달은 성역할 정체감 및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성적충동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Sung, & Lim, 2009). 왜곡된 성역할은 남녀의 성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성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Park, 200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중 성폭력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역할정체감이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폭력 태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과 성폭력 태도를 파악한다.
-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성폭력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폭력 태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폭력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부산 지역에 소재한 I 대학교의 여학생으로, 비 확률표출법인 편의표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Cohen (1988)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상자를 네 가지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으로 구분하여 측정변수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mu=3$ (df: N-1), $\alpha=.05$, 효과 크기는 중간정도인 .25, 검정력(1- β)을 .90으로 가정할 때, 각 집단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58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68명에서 91명까지 분류되었으므로 초기분석에 요구되는 최소인원인 58명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여대생 29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는 Park (2002)이 성역할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하기 위해 만든 40문항 5점 척도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성성 20문항과 남성성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해석은 Spence와 Helmreich (1979)가 제안한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분류한다.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하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한다.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각각의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으로, 두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 성폭력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폭력 태도 측정도구는 Shin (2004)의 성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0문항의 5점 척도의 성폭력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폭력에 대한 지식 20문항과 인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성폭력 개념과 사건의 지각에 있어 인지정도가 높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74, 인식은 .7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문 작성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성폭력 태도는 χ^2 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자는 부산 지역의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확률적 임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년이 26.8%, 3학년이 26.4%, 4학년이 25.1% 순이었으

며, 학생들의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서 자취하는 경우가 20.0%였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갈등 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25.8%, ‘항상 그렇다’ 22.4%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가족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성교제 경험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가 37.6%, ‘없다’가 34.9%, ‘현재 교제 중’이 27.5%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64 (21.7)
	2	79 (26.8)
	3	78 (26.4)
	4	74 (25.1)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123 (41.7)
	With proximity of blood	10 (3.4)
	With friend	46 (15.6)
	Alone	59 (20.0)
	Dormitory	48 (16.3)
	Other	9 (3.1)
Communication for conflict	Nothing of the kind	8 (2.7)
	Not	13 (4.4)
	Common	76 (25.8)
	Well	132 (44.7)
	Always well	66 (22.4)
Dating between male and female experience	None	103 (34.9)
	Dating now	81 (27.5)
	Dated but not now	111 (37.6)

2.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특성을 보면 남성성의 평균 점수는 65.4 (표준편차 9.8)이었고, 여성성 지수의 평균값은 70.4 (표준편차 8.5)이었다. 중앙치 분리법을 이용한 결과에서 남성성의 중앙치는 65점이었고, 여성성의 중앙치는 70점이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양성적 유형이 30.7%, 남성적 유형이 23.1%, 여성적 유형이 23.1%, 미분화 유형이 23.1%로 양성적 정체감 유형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정도($\chi^2=26.68,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갈등 시 대화를 하느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

Table 2. Sex Role Identity Types of Subjects (N=295)

Sex role identity	n (%)
Androgyny	91 (30.7)
Masculinity	68 (23.1)
Femininity	68 (23.1)
Undifferentiation	68 (23.1)

답한 경우 남성적 정체감(50.0%) 유형의 집단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미분화 정체감(38.5%) 유형이 많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미분화 정체감(34.2%) 유형의 집단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양성적 정체감(38.6%) 유형의 집단이 많았으며,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양성적 정체감(36.4%) 유형이 많았다.

3. 성폭력 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최대 192점에서 최소 144점, 평균 155.3점(표준편차 12.5)으로 성폭력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폭력 태도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폭력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폭력태도의 인식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0, p=.047$). 이를 Scheffe's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여성적 정체감 유형이 미분화 정체감 유형보다 성폭력 인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여성적 정체감 유형의 대상자가 미분화 정체감 유형의 대상자보다 성폭력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Table 5).

논 의

한 개인의 의식은 그가 사는 주위의 생활환경과 삶의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행위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폭력이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와 고정화된 성역할관 및 남성중심의 사회분위기와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Table 3. Sex Role Identity Typ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 role identity				χ^2	<i>p</i>
		Androgyny n (%)	Masculinity n (%)	Femininity n (%)	Undifferentiation n (%)		
Grade	1	19 (29.7)	17 (26.6)	15 (23.4)	13 (20.3)	3.29	.951
	2	22 (27.8)	16 (20.3)	19 (24.1)	22 (27.8)		
	3	28 (35.9)	17 (21.8)	18 (23.1)	15 (19.2)		
	4	22 (29.7)	18 (23.4)	16 (21.6)	18 (24.3)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8 (30.9)	26 (21.1)	24 (19.5)	35 (28.5)	18.01	.262
	With proximity of blood	2 (20.0)	2 (20.0)	5 (50.0)	1 (10.0)		
	With friend	14 (30.4)	11 (23.9)	11 (23.9)	16 (21.7)		
	Alone	16 (27.1)	11 (18.6)	16 (27.1)	16 (27.1)		
	Dormitory	16 (33.3)	17 (35.4)	10 (22.8)	5 (10.4)		
	Other	5 (55.6)	1 (11.1)	2 (22.2)	1 (11.1)		
Communication for conflict	Nothing of the kind	2 (25.0)	4 (50.0)	-	2 (25.0)	28.68	.004
	Not	1 (7.7)	4 (30.8)	3 (23.1)	5 (38.5)		
	Common	13 (17.1)	22 (28.9)	15 (19.7)	26 (34.2)		
	Well	51 (38.6)	29 (22.0)	30 (22.7)	22 (16.7)		
	Always well	24 (36.4)	9 (13.6)	20 (30.3)	13 (19.7)		
Dating between male and female experience	None	22 (21.4)	23 (22.3)	28 (27.2)	30 (29.2)	10.06	.122
	Dating now	30 (37.0)	17 (21.0)	20 (24.7)	14 (17.3)		
	Dated but not now	39 (35.1)	28 (25.2)	20 (18.0)	24 (21.6)		

Table 4.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Cognition toward sexual violence		
		M±SD	F	<i>p</i>	M±SD	F	<i>p</i>
Grade	1	78.8±7.08	1.61	.188	74.7±6.90	2.41	.068
	2	78.7±6.01			76.1±6.80		
	3	78.5±6.69			75.5±7.31		
	4	80.7±8.65			77.8±7.64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79.7±7.50	0.54	.746	76.3±7.45	0.78	.568
	With proximity of blood	77.6±4.19			75.9±5.32		
	With friend	78.2±7.70			74.9±7.45		
	Alone	79.2±6.78			77.1±6.58		
	Dormitory	78.7±7.18			75.1±7.49		
	Other	80.8±5.13			77.4±7.66		
Communication for conflict	Nothing of the kind	80.8±6.68	1.27	.282	78.6±6.45	0.30	.879
	Not	78.0±6.09			76.4±7.40		
	Common	78.4±7.74			75.9±7.35		
	Well	78.8±6.67			75.9±7.37		
	Always well	80.7±7.64			76.3±7.00		
Dating between male and female experience	None	79.2±7.00	1.74	.177	75.7±7.12	1.53	.218
	Dating now	78.0±7.15			75.3±7.51		
	Dated but not now	80.0±7.31			77.0±7.08		

Table 5.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N=295)

Sex role identity	n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Cognition toward sexual violence			
		M±SD	F	p	M±SD	F	p	Scheffe
Androgyny ^a	91	79.6±7.41	0.39	.759	76.5±7.35	3.30	.047	c > d
Masculinity ^b	68	79.0±7.55			76.4±8.10			
Femininity ^c	68	79.4±6.14			77.2±5.87			
Undifferentiation ^d	68	78.4±7.51			74.1±7.16			

고려해 볼 때, 우리사회 구성원의 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적 유형(30.7%)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적, 여성적과 미분화 유형은 동일한 빈도였다. 이는 같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ung과 Lim (2009)의 연구에서 양성적 정체감을 지닌 집단이 각각 27.2%, 29.2%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와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 Kim, Choi, Shin과 Lee (2002)의 연구에서 양성성 유형이 37.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남녀 평등의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여성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특성으로 인정되는 성역할을 갖도록 고무된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역할 특성이 양성성인 경우 행동상의 적응력이 높고 성차에 관한 고정관념이 없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양성성인 학생의 경우는 과제수행 점수도 높고 성공회피 동기도 낮게 나타난다(Bem, 1974; Yeoum, 2003). 따라서 양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개인보다 능력이 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p=.004$)가 있었는데, 이는 Houg (2005)의 연구에서 학년, 주거형태, 이성교제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Houg (200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2학년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년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성적 정체감 유형은 적극성, 활동성, 독

립성 등의 남성성향이 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갈등이 있을 때 가족과 대화로 풀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성향이 높을 경우에는 적응력이 뛰어나 사회적응을 잘하게 된다(Yeoum, 2003).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교제중이거나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경우에 양성적 유형이 많았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eoum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양성성의 성향은 개방적이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이성교제에도 적용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평균 155.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대상자들은 성폭력 개념과 사건의 지각에 있어 인지정도가 높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hin (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신념으로 그릇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합리화, 이중적인 성규범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개개인에게 내면화된다(Houg, 2005). 또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여대생들이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여대생들보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으며, 여성의 전통성이 여성을 보다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게 만들고, 성적 공격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다(Nam, 2004). 따라서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폭력 태도의 차이분석에서 성역

할 정체감에 따라 성폭력 태도의 인식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Houg (2005)의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성폭력 태도의 지식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적 정체감 유형의 대상자가 미분화 정체감 유형의 대상자보다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는 여성성의 특성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고, 적응력이 높아서 사회적응을 잘하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성역할은 그 사람이 양육되어진 방식,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학교 및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며(Kathleen, 1998), 긍정적인 성정체감은 자신의 성과 성폭력 사건발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때, 여대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변화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여주어 성폭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대상자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수용하고 양성 평등적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이 성폭력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서 4가지 유형별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적 유형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정도($p=.004$)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성폭력 태도의 인식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여대생들은 남성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태도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예방 및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미분화성 정체성 성향을 가진 대상자들

이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문제해결중심의 성교육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Baek, E. R., & Lee, E. M. (2006).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and recommendations for sexual violence counselling for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Asian Women*, 45(1), 53-100.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ug, K. M. (2005).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dentities and attitudes about sexual violen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Jang, S. H. (2003). *A study on sexual violence consciousness of adolescence: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chonnam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Kathleen, T. (1998). Essays featuring: Masculinity-femininity: Society's difference dividend. Retrieved September 5, 2006, from http://web2.airmail.net/ktrig246/out_of_cave/mf.html
- Kim, J. I., Do, K. S., & Lee, J. H. (2003).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1), 56-67.
- Kim, S. N., Choi, S. O., Shin, K. I., & Lee, J. J.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the meaning in life for a matriarc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2), 190-200.
- Ko, H. J., & Lee, E. J. (2007). Difference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3), 192-200.
- Kwon, S. H., Kim, S. N., Park, C. H., Seo, Y. S., Sung, M. H., An, S. H., et al. (2006). *Women and health*. Seoul: SoomoonSa.
- Lee, J. H., Kim, K. H., Choi, M. H., Kim, H. Y., Oh, K. S., & Kim, K. S. (2010). A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nd cyber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76-84.
- Lee, W. S. (2000). Analysis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of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9, 171-195.

- Nam, M. J. (2004). *A study on rape myth according to sexual ident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Nam, S. Y., Yoo, E. G., & Park, K. E. (2000). A study on the type attitude toward the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 5-17
- O'Donohue, W., Downs, K., & Yeater, E. A. (1998). Sexual harass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Behavior*, 3(2), 111-128.
- Oswald, P. A. (2004).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usefulness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94(3), 1331 -1336.
- Park, K. J. (2002). *Research on sex-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Ryu, E. J., Seo, J. S., Ham, M. Y., & Park, Y. R. (2006). Sex-role identity i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2), 136-143.
- Sadler, A. G., Booth, B. H., Nielson, D., & Doebbeling, B. N. (2000). Health-related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Women in the military.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96, 473-480.
- Shin, G. S. (2004). *The effect of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adolescent on the attitude change relevant to sexual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Spence, J. T., & Helmreich, R. (1979). The many faces of androgyny: A replay to Alocksley and Colt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31-1046.
- Sung, M. H., & Lim, Y. M. (2009). Discriminant factors of attitude pattern toward sexual violence of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312-319.
- Yeo, J. H. (2003). College women's meaning of women: Phenomenological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34-41.
- Yeoum, S. G. (2003).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 309-318.